

# 유인석(柳麟錫)의 문명인식과 위기대응론 고찰

「우주문답(宇宙問答)」을 중심으로

방용식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고등연구소 글로벌리더십연구센터 인턴, 정치학 전공  
bays1@hanmail.net

- I. 머리말
- II. 유인석과 중화문명론
- III. 국가적 위기 극복 방안
- IV. 맺음말

## I. 머리말

1800년대 중반 조선은 존립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노출되었다. 내부적으로는 세도정치로 인한 지배세력의 분열과 정치적 불만이 점증했고, 삼정의 문란에 따른 민란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sup>1)</sup> 외부적으로는 서양 상선(이양선)의 근해 출현이 잦아졌고, 영·불 연합군에 의해 청나라의 수도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은 조선 정부는 물론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일본은 정치개혁을 통해 국론을 모았으며, 자신들의 경제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조선을 침략하려는 의지를 굳히고 있었다. 그 첫걸음은 1876년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약) 체결이었다. 그리고 강화도조약은 제국주의 변신에 성공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열쇠가 되었다.

강화도조약을 전후한 시기 조선에서는 문명 전환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박규수(1807-1876)를 필두로 한 개화파와 이항로(1792-1868)의 문인인 화서학파를 중심으로 하는 위정척사파의 대립이 바로 그것이다. 개화파는 일본 또는 서양과의 개항을 통해 그들의 기술을 도입하여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정척사파는 일본과 서양은 '사람의 마음을 갖지 않은' 이적(夷狄) 또는 금수(禽獸)인데다, 그들의 상품생산 방식과 조선의 생산방식은 우열이 분명해 그들과 통상·수교할 경우 조선의 예의와 도덕은 무너지고 산업기반이 와해되어 결국 망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개화파는 일본과 서양의 기계기술을 문명으로 간주한 반면, 위정척사파는 17세기 이래 조선이 중화를 계승했다는 선언인 조선중화주의와 그것이 천명하는 예의와 윤리를 문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명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개화파와 위정척사파 간의 대립의 원인이었으며, 더욱이 위정척사파는 나름의 화이관(華夷觀)에 입각해 중화인 조선을 침략하는 서양과 일본을 '이적' 나아가 '금수'로 규정하면서 배척했다. 이런 문명관의 차이에서 생긴 대립은 임오군란을 계기로 개항을 결정한 고종의 명령<sup>2)</sup>으로 서양과

---

1) 李離和의 논문 「19세기 전기의 民亂研究」(『한국학보』, 일지사, 1984)와 망원한국사연구실이 펴낸 『1862년 농민항쟁』(동녘, 1988) 등을 종합하면 1800년대 조선에서는 100여 건의 민란이 발생한 '민란 폭발'의 시기였다.

수교에 적극 나서면서 서양과 일본, 즉 조선이 아닌 외부세계에 문명이 있다는 개화파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개화파의 승리는 조선이 근대화를 통한 부국강병도 이루지 못하고 문명을 소유하지도 못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의암(毅菴) 유인석(柳麟錫, 1842-1915)은 이렇게 조선이 문명이라는 의식, 그리고 서양과 일본이 문명이라는 의식이 서로 강하게 부딪히는 시기에 살았다. 그는 주자성리학을 공부한 전통적 유학자로서 인식의 바탕을 화이관적 문명론에 두고,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따른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에 일관한 실천적 지식인이었다. 유인석은 1895년 8월<sup>3)</sup> 을미사변이 발생하자 같은 해 12월 '도적복수(討賊復讎)'를 기치로 내걸고 의병운동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1915년 1월 중국에서 사망할 때까지 약 20년을 항일의병의 선봉에서 줄곧 활약했다.

이런 이유로 유인석과 관련한 연구는 항일의병 또는 독립운동사, 사상 등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되었다.<sup>4)</sup> 이는 유인석이 항일의병 투쟁은 물론 위정척사 사상에서 차지하는 상징성 등을 감안하면 합당한 일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연구는 유인석이 항일투쟁에 나선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위정척사에 기반을 둔 사상이 또는 활동가라는 측면에만 집중해 그의 활동과 사상을 분석하고 있다. 이럴 경우 그의 항일 및 독립투쟁을 중국 중심의 맹목적 중화주의에 의한 것으로 폄하하

2) 개화파와 위정척사파의 대결 양상을 띤 임오군란이 마무리된 1882년 8월 5일 고종은 “서울과 지방에 세워놓은 척양에 관한 비문들은 모두 뽑아버리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조정 내부에서 척화 논의는 물론 척화를 주장하는 일부 관료들의 상소가 사라졌다. 『고종실록』 19년(1882) 8월 5일: 「서울과 지방에 세운 척양비를 모두 뽑아버리라고 명하다」.

3) 날짜는 유인석의 문집이 음력으로 표기한 까닭에 특별한 경우, 즉 일본 측의 기록 등을 제외하고는 음력 표기를 기준으로 한다.

4) 그와 관련한 중요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항일의병 차원의 연구는 柳漢喆, 「中期義兵時期(1904-1907) 柳麟錫의 時局對策論」,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7집(1993); 朴性淳, 「柳麟錫의 華夷論에 대한 批判的 檢討」,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6집(2001); 박민영, 「柳麟錫의 국외 항일투쟁 路程(1896-1915)-러시아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9집(2001); 李愛熙, 「毅菴 柳麟錫의 沿海州에서의 義兵鬪爭과 思想的 變移에 관한 연구」, 『東洋哲學研究』 제69집(2002) 등이 있다. 또 사상 차원의 연구는 金世圭, 「毅菴 柳麟錫의 半開論」, 『慶州史學』 제1집(1982); 柳漢喆, 「1910년대 柳麟錫의 思想 변화와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9집(1995); 윤대식, 「毅菴 柳麟錫의 斥邪와 實踐-昭義新編과 ‘宇宙問答’에 나타난 思想的 變化」, 『동양정치사상사』 제1권 2호(2002); 장현근, 「중화질서 재구축과 문명국가 건설: 최익현·유인석의 위정척사사상」, 『정치사상연구』 제9집(2003) 등이 있다.

는 것은 물론 ‘한때의 울분을 참지 못하는’,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알지 못한 어리석음’<sup>5)</sup> 때문으로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유인석이 당시 국가적·민족적 위기 극복을 위해 의병투쟁에 나선 이유를 그의 문명적 인식과 함께 고찰하고자 했다. 유인석이 무엇을 위기로 인식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의 행동에서 사상적 바탕이 되는 중화문명론(비전), 그리고 여기에서 출발하는 위기극복 방안(처방)을 살펴보았다.<sup>6)</sup> 주요 분석 대상은 유인석이 바람직한 문명 형태로 인식한 중화문명과 그것의 회복을 통한 조선의 국권회복을 위한 방안을 수록하고 있는 「우주문답」이다.

필자는 이 연구를 통해 유인석이 항일의병 투쟁에 나선 것은 한때의 울분을 참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중국 중심의 화이관에 매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고찰하면서, 유인석에 대한 기존 인식 전환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특히 유인석이 의병 활동에 나선 것은 일본에 의해 강요된 제국주의 질서 속에서 조선이 간직했던 문명적 자부심(조선중화주의<sup>7)</sup>)을 지키고, 또한 그것을 통해 조선이 직면한 공동체 해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었음을 밝히는 데 목표를 두었다.

- 
- 5) 《皇城新聞》은 1907년 9월 25일자 논설 「의병 제군에게 경고한다」에서 “의병 제군의 오늘 이러한 행동이 [...] 도리어 동포를 해치고 조국을 상하게 할 뿐이요, 털끝만치도 실효가 없을지니……”라면서 항일의병을 무모한 행동으로 비판했다. 오영섭은 논문 「毅菴 柳麟錫의 對西洋認識」(『이기백선생 고회기념 한국사학논총(하)-조선시대 근현 대편』, 이기백선생 고회기념 한국사학논총 간행위원회, 1994, 101쪽)에서 “개항 이래 보수적 재야 유생들은 계몽사상과 사회진화론 등 서구근대사상의 영향을 받아 중국 중심적 세계관을 벗어나고 있었으나, 이러한 ‘시대적 대세를 역행(인용자 강조)’하고 반개화적 보수사상을 견지하면서 전통수호운동을 벌인 일군의 인물이 있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유인석이다”라며 유인석의 사상을 폄쇄했다.
- 6) 이 논문은 미국 정치학자 스프라겐스(Thomas Arthur Spragens Jr.)가 *Understanding Political Theory*(New York: St. Martin's Press, 1976)에서 정치이론가의 행위를 분석하면서 사용한 ‘인식, 진단, 비전 처방’ 모델 및 정윤재가 학위논문 “A medical Approach to Political Leadership: An Chae-Hong and A Healthy Korea”(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1988)에서 채택한 ‘비전, 인식·진단, 처방, 행동’이라는 분석틀을 차용했다. 이 가운데 유인석이 강력한 화이관을 소유한 유학자였음을 감안해 그의 항일투쟁을 ‘비전’과 ‘처방’으로서 살펴보았다.
- 7) 조선중화주의는 17세기 중반 명나라 멸망, 청나라에 대한 굴욕적 항복으로 인한 사상적·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형성된 개념이다. 송시열 등은 명의 멸망으로 중화가 없어진 상황에서 조선이 중화의 명맥을 계승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조선 전기 이후 견지해온 소중화의식의 발전적 형태로써 중화의 주체적 수용으로 이해된다. 조선중화주의는 중화를 판단하는 세 가지 요소(종족·지역·문화) 중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정옥자, 『조선 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일지사, 1998); 우경섭, 『조선중화주의의 성립과 동아시아』(유니스토리, 2014); 방용식, 『위정척사 지식인의 국제관계 인식과 대응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6) 참조.

## II. 유인석과 중화문명론

19세기 중반 이후 조선은 문명충돌이라는 소용돌이의 복판에 있었다. 충돌 대상은 조선중화주의와 제국주의였다. 조선을 향해 온 세력은 영국과 프랑스 등 원형(原型)제국주의는 물론 러시아·일본과 같은 후발 제국주의를 망라하였다. 중국은 서양 열강에 의해 농락당하며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었고, 17세기 중반 이해 ‘중화’를 표방한 조선은 동아시아 문명을 이끌어 나갈 실체로서 존재하는 힘을 갖지 못했다. 한때 같은 문명권 국가였던 일본은 미국의 군사력에 굴복당한 후 재빠르게 문명으로부터 떨어져나갔고, 서양과 같은 방법으로 문명의 중심을 향해 칼끝을 돌리고 있었다.<sup>8)</sup>

문명의 충돌은 특정 국가에서 문명의 전환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또 현실로서의 정치, 나아가 정치사상의 충돌도 따른다. 문명의 충돌이 시작되면 상대적으로 강한 문명은 살아남는 대신 약한 문명은 상대방에 흡수되어 소멸된다. 이런 과정에서 특정 공동체 내에서는 자신들의 문명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저항이 일어나거나 적당한 타협을 이루게 된다. 한국근현대사의 경우를 비취볼 때 위정척사사상과 동학사상은 전자를, 개화사상은 후자를 대표한다. 이 글의 연구 대상인 유인석은 위정척사의 사상적 계보를 잇는 주요 인물이자, 조선의 문명과 그 문명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병투쟁의 선봉에 선 인물이었다. 유인석의 문명관을 살펴보자.

### 1. 문명에 대한 이해

유인석은 문명을 예의와 윤리가 밝혀지는 것, 또는 그러한 세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동양에서 문명은 본래 ‘밝음’의 의미였고, 『주역』과 『서경』에서는 이런 언급이 여러 차례 발견된다. 『주역』의 36번째 「명이괘

---

8) 토인비(A. J. Toynbee)는 이런 현상에 대해 “문명해체기에는 창조적 소수자로부터 무력으로 권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지배적 소수로 전락한 옛 문명중심세력, 문명에서 소외·분리되어 기존 중심권의 습속과 가치를 거부하는 내적 프롤레타리아, 문명권의 외곽에서 문명을 동경했던 민족국가가 완전히 떨어져나가 반기를 드는 외적 프롤레타리아 등 3개의 세력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김용직, 『한국 근현대 정치론』(풀빛, 1999), 123쪽 참조.

(明夷卦)는 ‘밝음이 땅속에 들어가니 밝음이 상한다. 안이 밝으니 밖이 유순해진다(明入之中 明夷 內文明 而外柔順)’며 문명을 밝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서경』 「순전(舜典)」의 ‘준철문명(濬哲文明)’은 문덕이 빛남을 뜻했다.<sup>9)</sup> 여기에서 말하는 ‘밝음’은 어둠을 없앤다는 측면에서 예의와 윤리의 전달, 곧 교화로 이해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전통시대 아시아 절반 동쪽의 문명은 중국이 소유하고 있었다. 적어도 이 지역에서 예의와 윤리에 대한 고민, 즉 인간을 인간답게 여기려는 기제로서 ‘도(道)’는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인 유학에서 비로소 본격화되었으며, 이런 까닭에 유학은 중국에서 태생적 소유권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 대륙에서는 기원전 221년부터 다른 주변국을 압도하는 제국이 성립되고 정치적 헤게모니마저 행사하게 되면서 ‘문명’과 ‘중심’을 자처할 수 있었다. 이는 크리스토프교가 로마제국을 기반으로 성장한 것과 유사한 논리이다. 로마가 아시아·유럽·아프리카에 이르는 제국을 건설하지 않았다면 크리스토프교는 부족을 뛰어넘는 세계적 종교가 되지도 못했고, 그 결과 문명으로서 역할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조선이 유학을 통치이데올로기로 정하면서 유학을 사상적 토대로 여겼던 조선의 지식인들은 이 같은 중국 중심의 문명의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위정척사론을 대표한 화서학과 역시 이런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었고, 이항로의 제자인 유인석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세상의 중심에는 하늘의 도(道)를 간직한 중국(문명 또는 중화)이 있으며, 중국을 중심으로 여러 층위의 주변(이적 또는 야만)이 있다고 생각했다.<sup>10)</sup> 이들의 문명관을 세계지리에 대입시켜보면 중국 > 조선 > 일본 > 베트남·티베트 > 서양과 같은 모습이다. 유인석의 문명관이 담긴 언급을 살펴보자.

“땅은 하나이다. 땅의 위치와 운세의 처함에는 가운데와 번두리가 있고, 멀고 가까운 것이 존재한다. 땅의 중심에 처하여 하늘의 정도(正道)를 만나면 이루어짐이 앞서며, 땅의 변방에 처하여 하늘의 치우침을 만나면 이루어짐이 늦고 뒤진다. […] 대지에 중국이 있으니 중국은 땅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풍기(人文)가 일찍 열리고,

9) 양승태, 「문명충돌의 정치와 정치학: 대한민국의 국가정책과 한국 정치학의 학문적 정체성의 관계에 대한 문명사적 접근 서설」,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2호(2012), 153쪽 각주 6.

10) 자세한 내용은 방용식, 앞의 논문, 39-40쪽 참조.

사람과 나라가 오랫동안 존재하였다. (그러나) 외국은 땅이 번두리에 있기 때문에 풍기가 늦게 열렸고, 그래서 나라가 뒤에 이루어졌으며 오래지 않아 (중국에 비해) 차질이 생긴다.”<sup>11)</sup>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 유인석은 스승 이항로와 같이 화이관에 근거한 지리적 인식을 문명의 탄생 및 확산 속도로 이해했다. 그에게 중국은 천하의 중심에 있는 까닭에 ‘하늘의 도’인 문명을 주변보다 앞서 형성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라 발전 속도 역시 중심과 번두리 사이에는 적잖은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에 따라 중국에는 하늘의 도리가 통하는 상달(上達)이, 반면 외국은 형기를 이루는 하달(下達)이<sup>12)</sup> 발전한다는 식으로 문명 발달 형태의 차이를 설명했다. 이 같은 인식은 위정척사 지식인들에게 서양이 무기제조기술이나 산업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제시되었다.

이런 까닭에 유인석은 서양을 문명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명백히 반대했다. 이는 서법(西法, 서양의 문물과 정치·교육 등 제도)의 반대로 이어졌으며, 나아가 서법을 실어 나르는 존재였던 개화파와 일본에 대한 강력한 배척으로 나타났다. 유인석은 “사람들이 서양이 문물이 밝다 하며 지금 시대에 동양과 문명을 다투다”는 주장에 대해 ‘서양은 오상(五常)과 오륜(五倫)을 밝히지 않으며, 물질 만능주의적인 인식을 하고, 전쟁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을 능사로 한다’<sup>13)</sup>며 비판했다. 그는 또 “물질적인 것의 정교하고 유리함이 어찌 생민(生民)들에게 이롭겠는가. 화차(火車)는 수천, 수만 사람이 짐을 날라 얻는 이익을 독차지하니 그 이익을 잃는 자들이 어찌 빈곤하지 않겠는가. 물질이 발달할수록 부자는 이익을 얻어 더욱 부유해지나 빈자(貧者)는 손해를 입어 더욱 가난해진다”<sup>14)</sup>면서 기계적 생산방식에 의한 자본주의가 빠져들 수밖에 없는 물질 중심적인 행태를 꼬집었다.

우리는 유인석의 언급을 통해 위정척사 지식인들이 문명의 모습과 전파방식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추론할 수 있다. 그들에게 문명은

11) 柳麟錫 저, 서준섭·손승철·신종원·이애희 역, 『穀菴 柳麟錫의 思想 宇宙問答』(종로서적, 1984), 3-4쪽.

12) 위의 책, 3-4쪽.

13) 위의 책, 33-34쪽 참조.

14) 위의 책, 74쪽.

물질적 발달이 아닌 ‘정신의 고양된 차원’이었으며, 문명의 수용은 전쟁 또는 경쟁의 결과 발생하는 강제적 굴복이 아니라 ‘자발적 복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는 문명의 수용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람시(Antonio Gramsci)의 ‘헤게모니적 지배’와 같은 관점, 또는 유교적 표현으로는 ‘덕화(德化, influence by virtuous example)’로도 설명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조선의 지식인들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문명의 종주국 명나라를 굴복시킨 데 이어 조선을 침략한 청나라를 미련스러울 정도로 배척했고 결국 임금이 나가 항복했지만, 끝까지 청나라를 ‘이적으로 규정하며 정신적 승리를 표출할 수 있던 것이다. 즉, 이들은 청나라가 헤게모니 지배 또는 덕화가 아닌 무분별한 군사력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유학에서 낮춰 보는 패도(霸道)를 행사한 것으로 이해했다.

유인석의 문명에 대한 태도는 조선 지식인의 ‘화이관’에 토대를 둔 것으로, 그의 생애를 관통했다. 이는 유인석이 연해주 망명 중인 1913년 2월 「우주문답」에서 여전히 중화문명과 화이를 언급한 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즉, 그는 「우주문답」을 통해 중국은 땅의 가운데에 있어 ‘하달’의 성세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극복하여 옛 영화를 회복할 수 있으며, 서양 정치의 핵심인 자유와 평등, 공화정, 민주제, 학교제도 등 서법을 비판했다.

이러한 이유로 유인석은 오영섭의 언급과 같이 ‘시대에 역행한, 반개화적인 보수사상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로서 ‘중국주의자’로 이해되기도 했다.<sup>15)</sup> 그런데 이러한 비판은 유인석의 문집, 적어도 「우주문답」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소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유인석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목도하면서 일본이 서법을 활용해 조선을 침략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또 그러한 일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법을 반대하는 동시에 아시아 지역의 맹주였던 중국을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유인석은 “개화하면 나라가 망하는데도 개화라고 부른다. 개화를 신법이라 말하니, 신법은 그 미혹됨이 심하다. [...] 망국은 서법 때문이고, 서법의 피해를 가장 심하게 본 나라가 조선이다”<sup>16)</sup>라며 서법의 피해를 언급했다. 그는 또 “일본은 서법으로써 [...] 개화한다고 하고, 개화를 하면 독립이 된다 하고, 독립이랍시고 보호를 한다 하고,

15) 이 글의 각주 5 참조.

16) 柳麟錫 저, 서준섭 외 역, 앞의 책, 98쪽.



보호랍시고 합병을 해버리니, [...] 밖으로 서법의 명문을 가장하고 안으로  
는 망국한 욕심을 채웠다”<sup>17)</sup>고 비판했다. 유인석은 이런 까닭에 조선이  
망국의 치욕을 겪은 이유에 대해 “겉으로 드러낸 것은 신법(新法)의  
개화이지만 모든 일은 영원한 원수인 일본 오랑캐에서 시작한다”<sup>18)</sup>고  
지적했던 것이다.

그러나 유인석은 문명에 대한 전통적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우주문답」  
에서는 서법의 부분적 수용을 언급하는 등 변화된 의식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일병탄 이후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일본제국주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서양의 장기(長技)라도 필요한 것은 도입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인석이 1895년 제천의병 이후 일본군과 수차례  
전투를 벌이면서 일본군의 신식무기의 위력을 직접 체험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서법의 수용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실제로 1894년 11월  
9일 이후 벌어진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군은 약 1만 2,000명<sup>19)</sup> 이상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동학군 진압을 위해 파견한 히로시마 대본영  
산하 후비독립 19대대에 40-50차례 전투 끝에 참패했는데, 이때 일본군이  
보유한 무기가 스나이더(snider) 소총<sup>20)</sup>이었다.

이런 까닭에 유인석은 시세변화상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배척에서  
수용’이라는 문명의식 전환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옛날 중국에서  
무력을 떨치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여, 전쟁을 하기도 하고 쉬기도 한  
것은 때에 따른 것이었는데, 오늘날에는 무력을 숭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서양의 전쟁 기술과 병기와 그 밖의 장점을 취하고, 그런 방식으로

17) 위의 책, 97-98쪽.

18) 柳麟錫, 『毅菴集』 권4, 「疏」 ‘西行時在旌善上疏’, 1면; 曹龍承 편, 『毅菴集』 上, 78쪽.

19) 이는 정확한 통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09-210쪽과 246-248쪽  
에서 ‘농민군이 판치(板峙) 뒷산으로부터 서쪽 봉황산(鳳凰山) 뒤 기슭까지 30-40리에  
걸쳐 마치 병풍을 퍼놓은 듯했다’는 기록을 토대로 추산했다. 30리를 기준으로 할 때  
길이는 12km이며 1m당 1명씩 배치했음을 가정할 경우 농민군 숫자는 적어도 1만  
2,000명 이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인터넷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동학혁명사  
일지’, ‘동학농민군, 관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참고하면 된다. [http://db.history.go.kr/  
item/level.do?levelId=pry\\_1894\\_11\\_09\\_0010](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pry_1894_11_09_0010)(최종검색일 2016년 3월 17일).

20) 스나이더 소총은 영국에서 개발되어 1867년부터 사용된 후장(後裝)식 단발소총으로  
일본에서는 1868년 보신전쟁(戊辰戰爭), 1877년 세난전쟁(西南戰爭), 대만침략(1874)  
등 전투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며 위력을 보였다. 재원은 구경 14.9mm로 일반 소총  
(11mm)보다 컸으며, 탄환속도는 359m/초, 최대사거리는 1,800m이다. 朴孟洙, 「동학  
농민전쟁기 일본군의 무기-스나이더 소총과 무라타 소총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  
연구』 제17집(2000), 259-260쪽.

계속해 서양의 것들을 취하는 것은 실로 부득이한 일이다”<sup>21)</sup>라고 말했다. 유인석은 또 “지금 중국은 지극히 쇠약한 운세를 당했고, 외국은 지극히 강성한 운세를 잡았다. 즉, 중국은 상달(上達)의 장기를 잃고 겨우 존립만 유지하는 형편이고, 외국은 하달(下達) 장기의 극치를 얻은 것이다”<sup>22)</sup>라면서 “서양 문물을 취하는 것은 ‘겨울에 가죽 옷을 입고 여름에 갈포 옷을 입는 것(冬裘夏葛)’과 같은 것이다”<sup>23)</sup>라고 덧붙였다.

특히 유인석이 기존의 문명의식을 수정한 이유는 기본을 유지하면서도 약간의 변용을 통하면 조선의 가치 회복은 물론 국권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한 까닭이었다. 이런 차원에서 유인석은 서양 문물의 수용과정에서도 주체성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즉, 유인석은 시세의 변화로 어쩔 수 없이 서법을 수용하지만, 본말이 전도될 경우 “의복을 벗고 알몸이 되는 것”<sup>24)</sup>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유인석은 이에 따라 ‘충심(忠心)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서양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는 김홍집·유길준·서광범 등 개화파들이 서양·일본의 문물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또는 시행하면서도 그 마음에 진실로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일본의 침략적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개화와 서법을 채택해 망국의 길로 이끌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아래의 언급에는 이런 생각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저들의 좋은 것을 취함에 있어서 마땅히 학도를 보내어 배우더라도 반드시 충신(忠信)과 재지(才知)를 겸한 사람을 택해 보내어야 한다. 비록 재주가 있더라도 충성스런 마음이 없으면 끝내는 해가 될 것이다. 또 외교를 할 때에도 반드시 사람을 뽑아 정법(程法, 외교가 진행되는 규칙이나 절차-필자)을 배우게 하되 반드시 근신(勤愼)과 명민(明敏)을 겸한 사람을 택하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不濟) 해(害)만 생긴다. [...] 이 밖에 방탕한 마음(漫浪)으로 유학하는 사람이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배우려는(私學) 사람은 금해야 폐단이 생기지 않고 나라가 보존될 수 있다.<sup>2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인석은 ‘중화’로서 조선의 문명에 대한 자부심을

21) 柳麟錫 지, 서준섭 외 역, 앞의 책, 38-39쪽.

22) 위의 책, 14쪽.

23) 위의 책, 39쪽.

24) 위의 책, 39쪽.

25) 위의 책, 15쪽.

잃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서양의 우수한 기술이라도 조선을 위해, 조선에 맞는 것만 도입하자(采西)는 입장으로 이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유인석은 “우리 자신의 명분을 찾아서 이익을 도답게 하고, 저들의 하찮은 것도 덜거나 더하여 취하는 것이 시세에 알맞게 하는 일이다”라며 민족중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26)</sup>

이런 측면에서 유인석은 개항을 통해 서양과 일본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부국강병을 이룩해야 한다는 맹목적인 개화과는 물론, 서양의 도덕과 기술을 구분해 기술만 들여오자고 하던 신기선(申箕善)을 중심으로 하는 동도서기론과도 명백한 차이를 보였다. 즉, 신기선 등은 서양의 예악(禮樂)과 형정(刑政)·복식(服飾)·기명(器皿)은 받아들이자고 주장한 데 반해 유인석과 같은 위정척사 지식인이 서기(西器)로 주장한 이러한 것들은 ‘중화문명’의 상징이었으며, 조선이 일본 또는 서양과 구별될 수 있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핵심적인 가치였다.

## 2. 화이관적 문명 인식

유인석은 화이관에 바탕을 두어 문명을 이해했는데, 화이의 구별을 통해 이를 따르는 것이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으로 파악했다. 이 같은 화이관은 유인석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이는 유인석뿐 아니라 위정척사 지식인들이 문명국으로 상정한 조선을 침략한 서양과 일본이 문명적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비판한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물론 유인석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주문답」에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서법을 일부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화이에 대한 그의 기본적인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또 그러한 변화 역시 조선의 국권회복을 위한 독립운동 방편에 불과한 것이었고, 서법의 우월성을 인정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의 제자 이소응(李昭應)이 쓴 제문에는 유인석의 문명의식

26) 유인석은 조선의 예의와 풍속을 요순시대와 비교하면서, 명나라가 망한 뒤 ‘조선=중화’라고 인식하는 등 조선중화주의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다. 그는 “우리 조선의 풍속이 아름다운 것은 당우(唐虞) 삼대(三代)에 견줄 수 있다. 유학의 술업(術業)은 정자(程子)와 주자(朱子) 등 여러 현인을 스승으로 삼았고, 비록 어리석은 부부라 할지라도 예의의 가르침을 숭상하였고, 군부(君父)가 위급한 일을 당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쫓아가서 구하는 마음이 있다. [...] 중국의 한족이 청(淸)에 망한 뒤부터는 우리나라가 홀로 우뚝 서서 도(道)를 지키고 있다”고 하였다. 柳麟錫, 『毅菴集』 권45, 「檄」 ‘檄八道列邑’, 356쪽.

에 따른 사상과 행동이 어떠했는지 잘 나타나 있다. 이소응은 “온갖 마음과 생각, 언어, 행동은 금석(金石)이라도 뚫을 정성과 신명(神明)에게 통할 충의에서 나오지 않음이 없었다. 첫째도 토적복수(討賊復讐)와 존화양이(尊華攘夷)요, 둘째도 토적복수와 존화양이라. 천만 번이라도 그치지 않았음은 춘추대의를 행함이다”<sup>27)</sup>라고 추모했다.

그렇다면 유인석은 어떻게 강력한 화이관을 형성하고 견지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보다 유인석의 경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벼슬에 나가지도 않고 고향인 가령리 인근에서 스승 이항로와 김평묵·유중교 등을 모시며 강학과 저술을 하면서 존주(尊周)에 따른 위정척사를 위한 사상적 논리를 다졌다. 이는 화서학파의 또 다른 대표주자인 최익현이 1855년 춘도기 명경과에 장원하면서 관료 생활을 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이런 경력의 차이는 일본 또는 서양을 인식하는 태도나 입장 차이와 연결된다. 즉, 최익현 역시 춘추대의와 조선중화주의를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여기는 유학자였기 때문에 국제관계를 화이관적인 시각에 의해 일본과 서양을 금수로 인식했다. 그러면서도 최익현은 약 20년의 관료 생활을 통해 국가의 힘이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원천임을 알게 되었고, 국제관계에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했던 것이다.<sup>28)</sup> 반면 유인석은 최익현과 달리 재야학자이자 항일의병가로 일생을 살았던 까닭에 국제관계의 현실보다는 유학적 명분을 우선시했다.

또 스승 이항로의 적극적인 척양(斥洋) 활동에 의한 영향 때문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유인석은 1866년 9월 병인양요가 발생했을 때 이항로가 75세의 노구를 이끌고 서울로 가서 주전론(主戰論)을 편 것을 곁에서 지켜봤다. 그는 스승의 행동에서 서양은 조선이 건국 이래 지켜온 이상적인 국제질서 의식과 그것이 형성하는 정치적·사회적 가치, 통치이념, ‘조선=문명국’이라는 자부심의 선언인 조선중화주의를 훼손하는 침략자이며 당연히 배척해야 한다는 것을 관념이 아닌 현실 속에서 이해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유인석이 평생 지향했던 위정척사의 사상적 주춧돌이자

27) 李昭應, 『習齋集』 권45, 「제의암유선생문」 20면; 박민영, 「毅菴 柳麟錫의 衛正斥邪運動」, 毅菴學會편, 『毅菴柳麟錫研究論文選集Ⅲ』(도서출판 산책, 2008), 130쪽 개인용.

28) 최익현이 국제관계를 현실적 측면에서 이해했다는 것은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전 상소한 지부복귀적화외소에서 일본과의 수교를 반대하는 첫째 이유로 ‘조선에 외교적 자주권이 없으며, 조선의 약함을 보이고 일본이 강함을 보이는 데서 오는 일본의 요구에 의해 수교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데서도 잘 나타난다. 자세한 내용은 방용식의 앞의 논문, 158-168쪽 참조.

실천적 기준이 되었던 것이다.

특히 일본의 침략적 행태는 유인석의 화의의식을 강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1876년 강화도조약을 시작으로 1884년 갑신정변으로 임금을 억압하고 복제를 변경시켰다. 1894년에는 갑오경장을 통해 역법을 고치고(改正朔), 의복제도를 바꾸고(變服色), 관제를 변경하고(變官制), 지방제도를 바꾸며(革州郡) 강요된 근대화를 추진했다. 게다가 1895년에는 을미사변을 일으켜 조선의 상징 무력화와 함께 주권국가로서의 권위를 추락시켰으며, 1905년 외교권 박탈에 이어 1907년 임금의 강제퇴위와 경찰권 박탈 등 조선에 대한 식민 지배를 위한 단계를 이행해나갔고, 1910년에는 기어코 조선을 병탄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행위는 유인석이 스승인 이항로 등으로부터 전수받은 춘추대의와 주리론과 합하여 일본을 이적, 나아가 금수로서 배척하게 만들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외부세력을 이적 또는 금수로 규정하고, 저항하는 것은 공동체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지식인으로서의 당연한 일이다. 이항로는 ‘이기가원론(理氣二元論)’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理)가 기(氣)에 우선해야 한다(理先氣後)는 것을 당위로써 인식했다. 그는 “‘이’와 ‘기’를 나누는 데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이’의 본체를 가지고 말한다면 ‘이’는 기를 다스리는 주(主)가 되며 ‘기’는 이를 싣는 기(器)가 된다. 이것이 떨어질 수 없다(不可離)는 설이다. ‘기’의 온갖 다른 것(萬殊)을 가지고 말한다면 ‘이’는 지선(至善)·지중(至中)의 준칙으로 되고 ‘기’는 편의(偏倚)·불과급(不過及)의 연유가 된다. 이것은 섞일 수 없다(不可雜)는 설이다.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에서 상하의 구분이 애매해지면 군신의 서열이 없어지고, 섞일 수 없는 것에서 피아(彼我)의 구분이 애매해지면 자적(子賊, 자식과 도적)의 구별이 없게 된다”<sup>29)</sup>며 시대적 위기를 진단했다.

다시 말하면 이항로에게 ‘이’와 ‘기’는 모두 중요한 가치이며 어느 한쪽을 배제하지도 않지만, 그는 단지 주인인 ‘이’가 객(客)이 되고 객인 ‘기’가 주(主)가 되는 상황을 반대한 것이다. 그는 “이가 주(主)를 이루고 기가 부림(役)을 이루면, 이가 순수하고 기가 바르게 되어 만사는 다스려지고 천하는 편안하게 된다. 기가 주를 이루고 이가 이(貳, 부차적인 것)를

29) 李恒老, 『華西集』 「雅言」 권1, ‘理氣’, 3면.

이루면, 기가 강하고 이가 가려져서 만사는 어지러워지고 천하는 위태롭게 된다. 털끝만큼 작은 차이(毫釐)가 천리(千里)의 차이를 낳는다”<sup>30)</sup>고 강조했다. 이런 논리에 따라 이항로는 19세기 중반 서양 세력(기)의 침략으로 인해 문명국 조선(이)이 해코지 당하는 상황을 성리학적 주리론으로 분석하면서 서양에 대한 배척을 주장한 것이며, 이런 인식은 다시 유인석에게로 전해졌다.

이렇듯 유인석의 경험과 학습은 유인석이 전통적인 화이관에서 스스로 벗어난 적이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서양에 대한 인식의 일부를 수정하는 내용이 담긴 「우주문답」이 1910년대에 들어서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유인석은 일본을 ‘금수’로 규정하며 철저히 배제했다. 이런 경향은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같은 화서학과 문인인 최익현의 태도와 같았는데, 이는 이항로 이후 학파를 이끌던 김평묵의 영향으로 풀이된다.<sup>31)</sup> 김평묵은 「어양론」 집필에 이어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될 즈음 어양론을 구체화한 「척양대의」를 짓고, 일본까지도 서양과 같은 금수로 규정하는 「왜양일체론(倭洋一體論)」을 주장했다. 김평묵은 “서양 사람은 금수라고 부르는데 이리와 승냥이, 짐새와 수리 같은 무리이다. 어찌 사람에게 이로운 소와 말, 개와 고양이 같은 것이겠느냐. 이리와 승냥이, 짐새와 수리 등은 사람을 해친다. [...] 이들과 화친하는 것은 두려워할 만한 일이다”<sup>32)</sup>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일본이 영국·프랑스가 중국을 침략할 때 서양과 한편으로 행동했으며, 강화도조약 때는 서양

30) 위의 책, 10면.

31) 김평묵은 1866년 병인양요로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이 현실화되자 음양오행설에 입각해 ‘서양을 사람의 도리가 없는’ 금수(禽獸)로 규정하는 「어양론」을 집필했다. 금수는 이적이 문명과 야만의 관계를 말하는 것과 달리, 사람과 짐승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제왕이 예의를 한번 잃으면 이적이 되고, 이적이 또 예의를 잃으면 금수가 된다’는 유인석의 표현에서도 그 위치를 알 수 있다. 김평묵은 “서양은 음방(陰方)인 이익만 주로 추구하는 서북방에 위치해 있어 이목(耳目)과 심지(心智)에 통달한 바가 금수(禽獸)의 기능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했다. 김평묵이 서양을 금수로 정의한 것은 스승인 이항로보다 한층 더 서양을 배척하는 인식의 표현이었는데, 이항로는 서양을 이적(夷狄) 또는 양적(洋賊)으로만 규정했다. 그런데 이 같은 김평묵의 인식은 화이관이 ‘나’를 침략하는 ‘남’에 대한 비판에서 생성된 것을 감안할 때, 서양의 침략이 훨씬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면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이적’과 ‘금수’에 대한 규정은 상대방에 의한 침략의 강도가 어떠한지에 따른 인식으로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적 또는 금수라는 규정은 단순히 관념의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 위기의식 차원에서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2) 金平默, 『重菴集』 권38, 「雜著」 ‘斥洋大義’, 5-6면; 金平默 著, 한국문집편찬위원회 편, 『한국역대문집총서 1869-重菴先生文集 6』(경인문화사, 1999), 298-299쪽.

대포를 갖춘 서양 선박을 타고 오고, 수호(修好)를 내세우는 사절 1명이 오는데 4,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sup>33)</sup> 등 일본의 행동과 인식이 서양 제국주의와 같다고 판단했다.

유인석은 중화문명 자체인 조선을 침략하는 일본의 행태가 춘추질서의 교란인 동시에 조선의 고유 가치와 질서를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공동체의 전복 위기로 인식했다. 그리고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인석은 화이관념을 차용해온 것이며, 일본의 침략이 거세질수록 그의 화이관은 더욱 강력해졌다.

### III. 국가적 위기 극복 방안

특정한 조직의 리더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또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리더의 능력과 곧바로 연결된다. 그리고 그 능력은 '리더십'으로 이해된다. 미국 정치학자 터커(Richard R. Tucker)에 따르면 리더십은 ① 그 집단이 겪고 있는 상황을 규정하는 진단(diagnosis), ② 규정된 상황의 해결을 목적으로 집단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행동을 제시하는 처방(prescription), ③ 집단의 지지를 바탕으로 집단구성원으로 하여금 실제적 행동으로 옮기게 할 수 있는 동원(mobilization) 등 3개의 기능적 측면으로 이뤄진다.<sup>34)</sup> 즉, 진단과 처방은 리더의 지적 판단력을 반영하고, 동원은 리더의 실천적 동력을 보여주는데 이들 3개의 기능적 측면이 얼마나 조화롭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리더십의 성패가 결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유인석은 일본이 침략으로 야기된 위기상황에서 조선의 문명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1786년 강화도조약을 반대하는 연명상소를 했고, 『사의조선책략』 논쟁으로 인한 1881년 신사척사운동에서는 '연미(連美)'와 '결일(結日)'을 반대하며 상소투쟁을 했다. 1895년 을미사변 이후에는 조선이 일본제국주의 침략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그리고 유인석은 20여 년간 항일의병투쟁을 상징하는 지도적인 역할을

33) 金平默, 위의 책, 권5, 「疏」 '折和疏', 2-3면; 金平默 著, 한국문집편찬위원회 편, 『한국역대문집총서 1864-重菴先生文集1』, 391쪽.

34) Richard R. Tucker 著, 안정시·손봉숙 역, 『리더십과 정치』(까치, 1983), 32-33쪽.

함으로써 진단과 처방, 동원을 적절하게 이뤄내는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이 글에서는 조선이 일본제국주의 식민지로 전락한 뒤 유인석이 「우주문답」에서 국권회복을 목표로 제시한 처방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중국의 회복

유인석은 「우주문답」에서 조선이 국권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중국의 회복을 꼽았다. 여기에서 중국은 지역으로서의 중국과 문명으로서의 중국을 함께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지역적 의미를 가진 중국을 뜻한다. 그러나 그의 주장을 깊게 살펴보면 두 가지 뜻의 중국이 함께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우주문답」에서 ‘중화’의 상태를 상징하는 가운데 중국을 말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유인석이 언급하는 중국은 문명을 소유한 것으로 인식했던 조선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유인석은 무엇보다 문명적 차원에서 ‘중국’의 회복을 희망했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서양과 일본에 의해 중화라는 문명적 가치가 훼손되던 때였다. 유인석은 중국이 회복될 때 실제적 국가로서 조선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렇다면 유인석이 상상하는 중국은 무엇인가. 그는 중국이 되는 까닭을 제왕대통(帝王大統), 성현종교(聖賢宗教), 윤상정도(倫常正道), 의발중제(衣髮重制)로 꼽은 뒤 이들 네 가지가 확립되면 온갖 법도와 일이 차례가 세워져 하늘의 도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sup>35)</sup>

그러나 조선이 일본에게 병탄되면서 유인석이 지켜내려고 노력했던 ‘중국’은 사라지고 말았다. 또 청나라가 망하면서 지역적 차원에서의 중국이 회복되기는 했지만, 신해혁명(辛亥革命)이 발발하면서 중국에는 서법의 대표적 형태인 공화제가 시행되었다. 유인석은 이에 대해 “천지에는 높음과 낮음이 있고, 만물에는 크고 작음이 있고, [...] 사람에게는 다름이 있다. [...] 평등이라 하면 질서가 없고, 질서가 없으면 어지러워지고, 자유라 하면 사양하지 않고, 사양하지 않으면 다투게 된다”<sup>36)</sup>며 공화제를 비판했다. 왜냐하면 공화제의 실시는 유인석에게 ‘중국’이 완전

35) 柳麟錫 지, 서준섭 외 역, 앞의 책, 10-12쪽 참조.

36) 위의 책, 35-36쪽.



히 무너져 내린 것이기 때문이었다. 즉, 공화제가 시행되면서 교화의 근본으로 여겼던 제왕대통은 끊겼고, 천주교의 전래로 유학은 교화의 가치를 잃었으며, 금수로 정의되었던 외국과의 수교로 예의와 윤리는 흐트러져 민생이 불안해졌고, 단발과 복제 변경으로 몸은 위(威儀)를 잃었다.

유인석은 이런 이유로 도(道)·덕(德)·학(學)·정(政)·형(刑)·문(文)·무(武)를 나라를 다스리는 대체로써 제시했다. 그는 모든 나라가 이것으로써 힘써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쇠잔해졌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하면, 이들 일곱 가지의 조화는 중국이 되는 방편이며, 이것에 힘쓸 때 중국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반해 서양(또는 일본)은 ‘하달(下達)의 형기(形氣)가 심하고, 도덕이 없는 공장기예(工匠技藝)의 땅’<sup>37)</sup>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유인석은 그러면서 서양의 학교와 정치제도 및 사상 등을 반대했는데, 이것은 모두 ‘중국’의 가치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는 “서양의 학교는 부자의 친함과, 군신의 의리와, 부부의 유별과, 장유의 차례와, 봉우의 믿음이라는 인륜의 도리를 밝히는 대신 형기(形氣)의 일만을 구하며 욕심을 채울 뿐이다”<sup>38)</sup>라고 비판했다. 이는 신학문 교육이 기술교육에 집중하는 세태를 꼬집은 것인데, 단순한 기술교육이 국민의 정신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현한 것이었다. 실제로 일본제국주의는 한반도에서 인문 중심 고등교육보다는 식민 지배를 위한 기술 중심의 초보적 교육에 힘썼다.

유인석은 지역적 의미에서의 중국도 회복되기를 기대했다. 이는 일본과 서양에 대한 맹렬한 비판과 달리 중국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서, 동시에 서양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착안한 동양 삼국 연대의 종주국을 중국으로 설정한 데서도 잘 나타난다. 또 유인석은 “중국은 세계의 으뜸이고 천지의 중심이다. 중국이 바로 서면 세계는 안정되고 천지는 화평해지며, 중국이 없으면 천지는 허물어진다”<sup>39)</sup>면서 중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조선은 중국에 의지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같은 태도는 유인석을 모화(慕華)사상에

37) 위의 책, 31쪽.

38) 위의 책, 49쪽.

39) 위의 책, 20쪽.

매몰된 친(親)중국주의자로 비판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19세기 중반의 상황에서 중국(청)은 일본 또는 서양처럼 침략자가 아니었고,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지식인들의 관념 속에서 청은 그런대로 상대할 수 있는 이적이지 금수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국토의 크기가 국력의 강약에 일반적으로 영향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유인석의 '중국 중심' 주장은 모화사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제정치의 현실적인 측면을 강조한 말로 이해할 수 있다.

## 2. 서법 수용

1910년 일본에 의해 조선이 병탄되자 서양 문물에 대한 기존 적대적 인식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서법을 수용하면서 근대화를 이뤘고, 그 결과 청나라와 러시아를 격퇴하고 조선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는 '일본이 서법을 써서 동양에서 으뜸이 되었다. 동양에서뿐 아니라 강한 러시아와 싸워 위축시키니 비록 영국·미국·독일·프랑스라도 모두 일본의 강함을 꺼리게 되었다'는 물음에 대해 "일본이 서양 법을 써서 강하게 되었다"<sup>40)</sup>는 것을 인정하면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서법을 일부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유인석은 개화파와 달리 서법의 무조건적인 수용을 반대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서양의 병기와 기계 등 국권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만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즉, 유인석은 서법을 필요악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특히 그는 서법을 수용하는 데 '주체성'을 강조하고, 일본이 강하게 된 것도 서법을 무작정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특성에 맞춰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조선은 서법을 지나치게 모열(慕悅)하면서 황급하게 서법을 좇았을 뿐 아니라 외국 사정을 먼저 깨달은 사람, 즉 개화지식인들의 서법이 가져올 부작용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유인석은 "일본이 자기 나라와 자신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타국의 장점을 취하고 이용한 결과 강함을 얻었다. 일본은 서양의 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이용했다"<sup>41)</sup>고 말했다.

그런 이유로 유인석은 아무리 시세가 변하더라도 자신이 가진 장점을

40) 위의 책, 90쪽.

41) 위의 책, 92쪽.

모두 버리고 좃대 없이 서양 법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옷을 벗고 알몸이 되는’ 꼴이며, ‘겨울에 얇은 칩덩굴로 만든 옷을 입고 여름에는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다. 유인석은 “우리 자신의 명분을 찾아서 이익을 두텁게 하고, 저들의 허찮은 것도 덜거나 취하는 것이 시세에 맞는 일이다”<sup>42)</sup>라고 주장했다.

### 3. 동양 삼국 연대<sup>43)</sup>

유인석은 「우주문답」에서 국권회복을 위해 ‘동양 삼국 연대론(이하 연대론)’을 역설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하나로 뭉쳐 서양 세력의 침략에 대비해야 한다는 ‘연대론’은 유인석의 국제관계 인식은 물론 일본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3국 연대를 주장하면서 일본을 기존의 금수가 아닌 문명권 내 국가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 ‘연대론’은 서준섭 등이 번역한 『毅菴 柳麟錫의 思想-宇宙問答』의 총론 20-24쪽과 각론 94-95쪽에 기록되어 있다.

유인석이 주장한 ‘연대론’은 당시 지식인 계층에서 널리 회자하던 국제정치 담론으로, 오늘날 지역안보(regional security)와 유사한 개념이었다. 1880년 일본 주재 청나라 공사관에 근무하던 황준헌(黃遵憲)이 『사의조선책략』에서 제기한 ‘친(親)중국, 결(結)일본’은 삼국 연대의 초보적인 형태로 보인다. 같은 시기인 1880년 설립된 흥아회(興亞會)도 동양 삼국 연대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19세기 말 대한제국

42) 위의 책, 39쪽.

43) 기존 연구는 유인석이 「우주문답」을 저술한 1910년대에 이르러 ‘동양 삼국 연대론’을 주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유한철, 윤대식, 오영섭 등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유한철이 논문 「1910년대 柳麟錫의 思想 변화와 성격」(『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9집, 1995, 29-36쪽)을 통해 ‘동양 삼국 연대론’이 주장되었다고 밝히면서 정설로 되었다. 그러나 『毅菴集』 권25, 「書」, ‘或答人’, 53면을 보면 “동양 3국은 서로 함께 지내왔고, 함께 외국의 모욕을 막는 것이 이치와 형세에 당연한 것입니다”라고 말해 이미 1907년에 삼국 연대를 주장했음을 알 수 있다. 또 1904년 8월에 쓴 「漆室憤談」에서는 “일본이 한국과 중국 등 동양 3국과 함께 힘을 모아 서양 세력을 물리쳐야 한다는 삼국 연대를 언급하면서도 한국을 침략했다”고 비판했는데, 이를 통해 유인석은 당시 개화지식인들에게 삼국 제휴(또는 연대)를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한국·중국·일본의 연대를 통해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동양 삼국 연대론’을 주장한 시기는 유인석의 사상적 변화가 강제병탄이라는 현실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국제상황을 주체적이면서 능동적으로 인식했다는 방증이 될 수 있어 그 의미가 중요하다.

시기 고종과 그 측근에 의해 시도된 삼국제휴 주장, 1900년 안경수(安卿壽)가 제기한 일·청·한 동맹론, 1910년 안중근(安重根)이 뤼순감옥에서 주장한 동양평화론 등에서 그 예가 발견된다. 또 유인석과 같은 화서학과 문인인 최익현 역시 을사늑약에 반대해 1906년 윤 4월 전라도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키면서 작성한 ‘일본정부에 부치는 편지(寄日本政府書)’에서도 동양대국과 삼국 연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한·중·일 삼국 연대가 모색된 시기는 서양의 침입에 대한 동양 3국의 우려가 커지는 시기였다. 서양은 19세기 중반까지는 아시아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적 침략을 전개했다. 즉, 영국은 인도, 프랑스는 베트남 등 인도차이나 반도와 같은 식이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들 제국주의 열강은 중국을 놓고 치열한 세력 다툼을 벌였고, 결국 공동분할 형식으로 중국을 지배했다. 또 후발제국주의 국가인 러시아는 1860년 아편전쟁으로 중국이 혼란한 틈을 타 연해주를 획득한 데 이어 부동항(不凍港) 확보를 위해 더욱 노골적으로 침략정책을 강화했다. 의화단의 난(1899-1900) 와중에 만주에 군대를 진주시킨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 지식인 계층에서 커다란 위협으로 인식되었고, 그 대안으로 백인 vs 황인이라는 인종적 연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황성신문》이 “의화단의 난은 동양의 화근으로, 청국이 폐허가 되면 황인종이 위태롭다”<sup>44)</sup>고 주장한 1900년 6월 23일자 논설은 당시의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조선이 겪는 국가적 위기극복 처방으로 유인석이 제시한 ‘연대론’의 목적은 국권회복이었다. 이 목표는 「우주문답」에 제시된 삼국 연대 주장의 처음과 끝까지 일관되어 있다. 유인석은 그렇기 때문에 한때 ‘하늘 아래 머리를 함께 들 수 없다(難共戴天)’고 정의했던 일본마저 포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목표가 다르면 추구하는 과정도 다르다. 그 까닭에 유인석은 일본과의 연대를 주장하면서도 일본의 침략적인 행태를 꼬집었다. 반면 개화계열 지식인들은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침략이 현실화되는데도 국권회복 차원이 아니라 인종적 연대감 차원에서 삼국 연대를 주장했다. 그러한 배경으로 체결된 1904년 한일의정서는 ‘정한론’

44) 「答疎齋先生書」, 《皇城新聞》, 1900년 6월 23일자, 2면; 金度亨, 「대한제국기 계몽주의 계열 지식인층의 ‘삼국연대론’-‘인종적 제휴론’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3집 (2000), 14쪽.

을 발판으로 조선침략을 계획하고 있던 일본에게 한국에서의 군사용지 이용을 허락했고, 이것은 한국 침략을 쉽게 만들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염두에 두고 유인석이 주장한 ‘연대론’의 내용을 살펴본다. 유인석의 ‘연대론’은 무엇보다 연대의 대상이 어느 특정한 나라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을 유지한 채 서로를 해치지 않고 이익을 누리며, 서로 강해지도록 독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는 “피차(彼此)간에 반드시 저들의 이익을 나의 이익으로 여기고, 저들의 얻음을 내가 얻는 것같이 하고, 저들이 잘되는 것을 내가 잘되는 것으로 여기며, 저들이 강해지는 것을 내가 강해지는 것으로 알아서, 전날과 같이 서로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또 서로 소원(疏遠)히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서로 믿고 친밀해져서, 이해득실과 성쇠강약(盛衰強弱)을 같이해야 한다”<sup>45)</sup>며 연대의 내용을 밝혔다. 이는 중화문명권이 일가(一家)를 이루면서, 천하에는 중화의 원리가 작용되어 ‘혼란이 사라지고 큰 다스림(大治)이 있는’ 상태로 설명된다.

이에 따라 유인석은 공자의 정명(正名) 사상을 각 국가의 역할에 연결시켰다. 곧, 중국은 중국답게, 한국은 한국답게, 일본은 일본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내적 차원과 대외적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sup>46)</sup> 대내적 역할을 보면 일본은 일의 기미를 살펴서 생각을 돌이키고 허물을 생각해 뉘우쳐야 하며, 중국은 중국이 되는 까닭을 독실하게 힘써서 바르고 강함을 얻어 스스로 천지의 중앙에 서야 하고, 조선은 성실하게 선(善)에 나아가며 스스로 강해지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외적 역할의 경우 우선 일본은 중국에 정성을 기울여 서로 화합하고 앞날을 잘 헤나가는 길을 깊이 강론하고, 조선에게는 사죄하며 나라를 돌려주고 서로 권면하여 자강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한 오랜 혐의를 풀고 좋은 관계로써 바르고 화목하게 지내야 하며, 조선에 대해서는 한집안과 같은 정의(情誼)를 도탑게 하고 일본을 꾸짖어 나라를 돌려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은 일본과 불구대천의 원한을 가졌지만 사죄를 받으면 시세를 보아 좋은 관계를 맺어 서로 꾸짖고 힘쓰며, 중국을 더욱 받들고 공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45) 柳麟錫 저, 서준섭 외 역, 앞의 책, 23쪽.

46) 유인석이 주장한 국가별 역할은 위의 책, 22-23쪽을 요약 정리한 까닭에 일일이 각주를 표시하지 않았다.

한편 유인석은 삼국 연대를 ‘중국 중심’으로 설정했다. 유인석이 중국을 중심으로 삼국 연대를 주장한 것은 그의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적 기반이 중화문명론과 화이관이라는 점 외에도 동양에서 정치적·군사적 헤게모니를 권 중국이 전통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감안할 때 당연한 일로 생각된다. 이는 개화계열 지식인들이 중국 대신 동아시아 지역의 강자로 떠오른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연대를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sup>47)</sup> 유인석은 국토 면적과 경제력 크기에 따라 국제정치 무대에서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조선과 중국이 중화문명으로 이어진 문명적 공동체라는 인식 때문에 중국 중심의 연대를 주장했던 것이다. 다음과 같은 유인석의 말에서 중국에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나타나 있다.

오늘날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 부득이 다른 나라와 도모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옳지 않으나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의지한다면 반드시 중국에 의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 중국과 조선은 별자리가 같고, 국토의 맥이 같으며, 인종이 같고, 윤상·제도·문물·학술이 같으며, 고금을 통해 함께 기뻐하고 슬퍼했으며, 함께 조심하고 즐겁에 기록이 뚜렷하다.<sup>4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인석은 중국에 종속되는 상태는 거부했다. 그가 중국에 의지하는 것은 단지 필요에 의해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임시방편이었다. 유인석은 “문물제도에 있어 대대로 전해오는 좋은 제도가 있다. 하필이면 명의 제도를 모두 따르는 것이 옳다고 하겠는가. 그 좋은 것을 구할 뿐이다”<sup>49)</sup>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제 위치에 서게 되더라도 문물제도는 조선의 실정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주체성이 반영된

47) 1900년을 전후로 개진된 한·중·일 삼국 연대는 개인의 사상적 지향과 이해관계,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등에 의해 다양한 의견으로 나타났다. 즉, 유인석과 같은 화서학과 문인들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삼국 연대를 주장한 반면 안경수 등 개화계열 지식인들은 일본을 중심으로 연대해야 할 것으로 주장했다. 이 시기의 연대는 인종과 문명적 유사성을 근거로 제기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李光麟, 「開化期 韓國人의 아시아 連帶論」, 『한국사연구』 제61·62집(1988); 金度亨, 「대한제국기 계몽주의계열 지식층의 ‘삼국제휴론’ - ‘인종적 제휴론’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3집(2000); 玄光浩, 「대한제국기 삼국제휴방안과 그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4집(2000); 정문상, 「19세기 말-20세기 초 ‘개화지식인’의 동아시아 지역 연대론」, 『아세아문화연구』 제8집(2004) 등을 참조.

48) 柳麟錫 지, 서준섭 외 역, 앞의 책, 98쪽.

49) 柳麟錫 지, 毅菴學會 역, 『국역 의암집 5』(도서출판 산책, 2002), 19쪽.

말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유인석은 일본과 서양의 문물을 ‘문명 자체’로 생각하고, 그것의 도입을 전면적으로 주장했던 개화계열 지식인과는 문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유인석의 ‘연대론’은 1차적으로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되찾고, 그런 다음 한국·중국·일본이 솔밭처럼 바로 섬[정립(鼎立)]으로써 동양을 보존하자는 데 목적이 있었다.

#### IV. 맺음말

1915년 1월 29일, 유인석은 74세를 일기로 이국땅 중국에서 노환으로 사망했다. 항일의병투쟁에 나선 지 20년 만이었다. 그토록 바랐던 중화문명과 국권의 회복도, 일본에 대한 복수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희망은 광복을 위한 독립투쟁으로 이어졌고, 한 세대가 흘러 해방을 맞았다. 해방 1년 뒤인 1946년 8월 17일 임시정부 주석이던 김구는 강원도 춘천에 있는 유인석의 묘를 찾아 “칼로 심어놓은 것과 같은 산수(山水)의 끈고함과, 가시밭길에 호랑이와 표범이 있는 것 같은 위험과 어려움을 끌고루 지냈으니, 왜적과 함께 하늘을 떠받치고 살지 않으려는 일념은 갈수록 굳으매, 몸이 기구(崎嶇) 속에 미치고 말았으되 그 뜻은 해와 별같이 비치어 지금까지 후배로 하여금 우리러 바라게 했다”<sup>50)</sup>고 추모했다.

유인석은 일본의 침략으로 꺼져가는 조선의 국권을 붙잡아 지키려고 헌신한 항일의병의 상징이었다. 그는 1895년 12월에는 제천의병의 총대장이 되어 의진(義陳)을 이끌었고, 한국병탄 이후에는 13도의군도총재와 성명회·권업회 회장을 맡는 등 독립운동의 지도자로 활동했다. 유인석의 항일운동에는 ‘중화의 회복’이라는 목표가 항상 뒤따랐고, 행동의 기반에는 ‘춘추대의’가 있었다. 왜냐하면 유인석은 예의와 윤리가 창달되어 밝혀지는 상태, 즉 ‘중화’를 문명으로 인식했으며 그러한 중화문명은 유학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유인석

50) 毅菴學會, 『毅菴 柳麟錫의 抗日獨立鬪爭史』(도서출판 산책, 2005), 348쪽.

이 상상했던 중화는 다름 아닌 문명국으로서 조선이었다. 즉, 그는 17세기 중반 이후 형성된 조선중화주의에 입각해 ‘조선=중화’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제국주의 근대화를 이룬 일본이 조선에 대한 강제적 문명이식 행위로서 침략을 노골화하자 유인석은 춘추대의와 화이관에 의거해 일본을 배척했다. 배척의 기제는 이적보다 배제의 수준이 더 높은 ‘금수’라는 규정을 통해서 이뤄졌다. 이는 유인석을 포함해 조선의 유학적 지식인들은 문명의 전파를 교화나 덕화 차원의 자발적 수용으로 인식했지만 서양과 일본은 군사력으로 문명을 강제하려는 데 대한 반발이었다. 더욱이 유인석에게 문명국, 즉 중화인 조선을 침략하는 일본과 서양은 춘추대의를 거스르는 이적과 금수였다. 그렇지만 이적과 금수와 같은 용어규정은 관념적 산물이 아니다. 역사상 수많은 문명과 국가 또는 공동체 간 충돌과정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을 수호하기 위해 상대를 적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당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유인석이 서양과 일본을 철저히 배척한 이유도 이것에서 찾을 수 있다.

유인석은 국제정치의 현실적 측면에서 중국(China)을 인정했지만, 개화 지식인이 주체적 자각 없이 외부세계(일본과 서양 문물)에서만 빛을 찾은 것과 달리 중국 자체에 매몰되지 않았다. 중화로 인정하면서도 명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따르기를 거부했던 것에서도 그의 주체적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유인석은 조선을 엄습한 국가적·민족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의 부흥을 희망하고, 그 필요성을 역설했다. 중국 또는 대세를 이용해 조선의 국권이 회복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조선이 독자적으로 일본을 극복하고,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인석은 독립을 위한 수단으로써 그동안 배척했던 서양 문물의 수용을 인정하고, 스스로 부강해지는 방법을 모색했다. 특히 유인석은 마구잡이식 개화로 인해 조선이 망국(亡國)에 이른 상황을 지적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도입하되 죽대 있는 서법의 수용을 강조했다.

이 글은 서양과 일본의 침략적 행태가 강화된 19세기 후반 유인석이 문명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러한 문명인식을 토대로 유인석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가려고 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고찰했다. 또 이를 통해 유인석의 사상과 행동을 새롭게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한국 근·현대



정치사상의 균형 잡힌 연구에 보탬이 되고자 했다. 그러나 국가적·민족적 위기를 맞아 유인석이 주장한 위기극복을 위한 방법이 지나치게 중국 중심으로 인식되고 표현된 것은 유인석의 사상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개화파 지식인들이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했지만 일본에 의지하여 개화를 추진함으로써 발생했던 주체성의 딜레마(the dilemma of independence)에 빠진 것과 같은 모습이다.

한편 이 논문은 유인석의 문명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위기대응 논리의 상관성 분석이라는 목표에 치밀하게 접근하지 못한 아쉬움도 없지 않다. 이러한 한계는 추후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하고, 유인석의 항일투쟁은 단순한 '의기'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민족이 주체적으로 형성한 '조선중화주의'라는 문명 속에서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한 차원이었음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문에 대한 연구가 확충되어야 한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1. 1차 사료

『高宗實錄』, 『純祖實錄』, 『正祖實錄』, 『憲宗實錄』.

『毅菴集』, 『重菴集』, 『華西集』.

《皇城新聞》.

柳麟錫 著, 서준섭·손승철·신종원·이애희 역, 『毅菴 柳麟錫의 思想 宇宙問答』.

종로서적, 1984.

柳麟錫 著, 毅菴學會 譯, 『국역 의암집 5』. 도서출판 산책, 2002.

### 2. 논저

金度亨, 「대한제국기 계몽주의계열 지식인층의 ‘삼국연대론’-‘인종적 재휴론’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3집, 2000, 7-33쪽.

金世圭, 「毅菴 柳麟錫의 半開論」. 『慶州史學』 제1집, 1982, 32-67쪽.

김용직, 『한국 근현대 정치론』. 풀빛, 1999.

Richard R. Tucker 著, 안청시·손봉숙 역, 『리더십과 정치』. 까치, 1983.

망원한국사연구실 편, 『1862년 농민항쟁』. 동녘, 1988.

朴孟洙, 「동학농민전쟁기 일본군의 무기-스나이더 소총과 무리타 소총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7집, 2000, 258-263쪽.

박민영, 「柳麟錫의 국외 항일투쟁 路程(1896-1915) - 러시아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9집, 2001, 154-186쪽.

\_\_\_\_\_, 「毅菴 柳麟錫의 衛正斥邪運動」. 毅菴學會 편, 『毅菴柳麟錫研究論文選集III』, 도서출판 산책, 2008.

朴性淳, 「柳麟錫의 華夷論에 대한 批判的 檢討」.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6집, 2001, 149-185쪽.

방용식, 『위정척사 지식인의 국제관계 인식과 대응 연구-비전, 진단과 처방, 그리고 행동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Samuel Huntington 著, 이희재 역, 『문명의 충돌』. 김영사, 1998.

양승태, 「문명충돌의 정치와 정치학: 대한민국의 국가정책과 한국 정치학의 학문적 정체성의 관계에 대한 문명사적 접근 서설」.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2호, 144-174쪽.

오영섭, 「毅菴 柳麟錫의 對西洋認識」. 『이기백 선생 고회기념 한국사학논총(하)-조선시대·근·현대편』, 1994. 101-136쪽.

우경섭, 『조선중화주의의 성립과 동아시아』. 유니스토리, 2014.

柳漢喆, 「中期義兵時期(1904-1907) 柳麟錫의 時局對策論」.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7집, 1993, 57-85쪽.

- \_\_\_\_\_, 「1910년대 柳麟錫의 思想 變化와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9집, 1995, 21-44쪽.
- 윤대식, 「毅菴 柳麟錫의 斥邪와 實踐 - ‘昭義新編’과 ‘宇宙問答’에 나타난 思想的 變化」. 『동양정치사상사』 제1권 2호, 2002, 69-93쪽.
- 毅菴學會, 『毅菴 柳麟錫의 抗日獨立鬪爭史』. 도서출판 산책, 2005.
- 李光麟, 「開化期 韓國人의 아시아 連帶論」. 『한국사연구』 제61·62집, 1988, 285-299쪽.
- 李離和, 「19세기 전기의 民亂研究」. 『한국학보』, 일지사, 1984.
- 李愛熙, 「毅菴 柳麟錫의 沿海州에서의 義兵鬪爭과 思想的 變移에 관한 연구」. 『東洋哲學研究』 제69집, 2002, 123-161쪽.
- 장현근, 「중화질서 재구축과 문명국가 건설: 최익현·유인석의 위정척사사상」. 『정치사상연구』 제9집, 2003, 35-60쪽.
- 정문상, 「19세기 말-20세기 초 ‘개화지식인’의 동아시아 지역 연대론」. 『아세아문화연구』 제8집, 2004, 41-60쪽.
-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일지사, 1998.
- 정윤재, “A medical Approach to Political Leadership: An Chae-Hong and A Healthy Kore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1988.
- Thomas A. Spragens Jr. 저, 이종은 역, 『현대정치이론의 이해』. 나남, 1991.
- 玄光浩, 「대한제국기 삼국제휴방안과 그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4집, 2000, 5-36쪽.

### 3. 인터넷 웹 자료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pry\_1894\_11\_09\_0010.

## 국 문 요약

19세기는 문명 충돌의 시기였다. 이 시기의 충돌은 문명의 교류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고 상대를 지배하려는 목적에서 의도된 것이었다. 유학의 가르침에 기초한 예의와 도덕지향적인 동양문명은 과학에 토대를 둔 물질과 자본지향적인 서양에 굴복했다. 서양 열강은 군사력을 앞세운 실력 행사(함포외교)로써 인도와 중국, 일본 등을 제압했다. 조선은 근대화화 제국주의화에 성공한 이웃나라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다른 형태의 문명충돌을 경험했다.

조선에서 문명의 충돌은 두 가지 모습으로 이해된다. 첫째, 관념적 차원에서의 충돌이다. 이는 위정척사 지식인들이 서양과 일본을 ‘중화문명론’에 근거해 배척한 데서 잘 나타난다. 중화문명론은 조선 지식인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인 전통적 관념체계였고, 17세기 중반 이후 조선중화주의로 수용되었다. 유인석은 조선중화주의에 입각해 중화인 조선을 침범하는 서양과 일본은 이적으로서 춘추대의에 따라 격멸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유인석이 항일의병 운동에 나서게 된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둘째, 정치적 차원에서의 충돌이다. 흔히 문명의 충돌은 정치적 충돌로 연결된다. 이런 까닭에 문명의 충돌은 민족국가 간의 경쟁으로 나타난다. 또 특정 국가의 지배적인 담론을 창출하는 정치사상의 대립으로 표출된다. 유인석은 이를 ‘중화 vs 이적, 금수’의 대립으로 상징화했다. 그렇지만 이적이나 금수라는 규정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대응기제였고, 그만큼 현실적인 문제였다.

이 글은 두 가지 모습으로 전개된 문명 충돌 속에서 유인석이 위기상황에서 어떤 가치에 따라 위기를 극복하려 했는지 고찰했다. 이를 통해 유인석이 끊임없이 항일의병투쟁에 나선 이유는 단순히 ‘의기’에 의한 관념적 차원이 아니라 위기극복을 위한 현실적·정치적 차원이었음을 살핍으로써 유인석의 사상과 행동을 이해하는 폭을 넓히는 데 목표를 두었다.

**투고일** 2016. 3. 24.

**심사일** 2016. 4. 18.

**게재 확정일** 2016. 6. 8.

**주제어(keyword)** 유인석(Ryu In-seok), 조선중화주의(Joseon sino-centrism), 중화문명론(the theory of Chinese civilization), 위기극복 처방(the prescription for overcoming national crisis), 정치적 리더십(political leadership)

## A Study on RYU In-seok's Thoughts of Civilization and the Theory Coping with Crisis

**Bang, Yong-sik**

It was the 19th century was a period of a crash of civilization. In those time, a crash of civilization did not accidently happen in the process of civilization exchange, but deliberately occurred to rule other nation. The oriental civilization, which aim for courtesy and ethnic based on confucian doctrine, was surrendered to the west based on scientific technic and capitalism. The western powers gained control of India, China, and Japan and so on, by the means of military strength. Joseon had experienced another crash of civilization, because it was colonized by neighboring country Japan which accomplished modernization and imperialism.

In Joseon, a crash of civilization were reflected in two aspects. First, it was ideological aspect. It well showed in that intellectuals of Wiejeong-chucksal[thought that proclaimed to protect the orthodoxy and reject the heterodoxy] rejected the west and Japan by the theory of Chinese civilization. Joseon's intellectuals accepted the theory of Chinese civilization as a normal ideology, and developed it to Joseon sino-centrism in the mid-17th century. According to the confucian thought of righteousness, Ryu In-seok considered as something to defeat the west and Japan that were invading Joseon. This gave a ideological foundation Ryu who recruited volunteers against Japan.

Second, it was a political aspect. Generally speaking, a crash of civilization was directly connected to political collision. For this reason, a crash of civilization is not only shown as a competition between nations, but also confrontation of political thought which create the dominant discourse in some country. Ryu symbolized these conflict as a opposition of civilization vs barbarian. This, in Ryu In-seok, was the coping mechanism to protect Joseon and its people.

This study considered that Ryu endeavored how to overcome national crisis in what values, under a crash of civilization followed in two aspects. This aims to enlarge understanding of Ryu's thought and action, through studying that Ryu consistently led the anti-Japan struggles were not simply ideological reason by chivalrous sprit, but realistic and political reason for overcoming national crisis.

